

성인대학생이 경험한 평생학습중심대학,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

이지혜(한림대학교, 교수)[†]

권진희(한림대학교, 연구조교수)[‡]

요약

이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주체인 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시각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B전문대의 성인대상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졸업한 8명의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2년의 시차를 두고, 재학 중 그리고 졸업 이후 두 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인 성인대학생과 운영주체인 대학은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양 측의 인식 차이는 각 국면마다 합의와 갈등,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대학과 학습자들은 입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 평생학습중심대학의 공식성에 주목하여 쉽게 합의한다. 두 번째, 학사관리체계 등에서는 학습자들이 성인으로서의 예외성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대학은 기존 전통적 대학생의 경우와 동일한 시스템의 적용을 강조하며 부딪친다. 셋째로, 학사운영 측면에서는 학비감면, 야간 운영 등으로 이 과정이 갖는 평생학습적 유연성에 상호 동의한다. 넷째로, 학사과정 자체에 대하여 대학은 개·폐설을 용이하게 생각하여 예고 없이 과정 폐지를 단행하고, 과정의 지속성과 후속과정 연계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여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 위에 놓인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주제어: 성인대학생, 대학평생교육, 고등평생교육, 평생학습중심대학, 성인학습자

I. 문제제기

최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이 증가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510-017)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이지혜(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jihye@hallym.ac.kr)

‡ 교신저자: 권진희(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kjh513@hallym.ac.kr)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35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대학생의 3.9%로 나타나 뉴질랜드 25.0%, 미국 13.4%, 영국 5.2% 등에 비하면 저조하지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2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3.7%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6.5%로 증가 추세에 있다(채재은·한승희, 2015). 이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고교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어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미흡한 실태이다.

성인대학생은 사회통념상 대학진학 적령기를 경과하였다고 여겨지는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전형적인 성인학습자를 말한다. 한국에서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연령대의 성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성차별 등으로 인해 부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다가 중년기에 들어와 진학의 포부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기반사회와 이른바 100세 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전문성 계발과 생애주기에서 '제3기' 인생설계 등이 강조되면서 성인들도 개인의 능력계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용구조의 변화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요구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성인들의 대학 진학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이희수 외, 2014).

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달리 현재 고등교육 체제는 전통적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기능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은 여전히 대학 밖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학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Knapper & Cropley, 2000).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과거 학위과정의 독점을 비롯하여 지식 위주의 폐쇄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학령기 학생부터 다양한 이유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학습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천세영·한승희, 2006; Schuetze & Slowey,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통해 대학 중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대학 중심 평생학습체제는 학령기 대학생 위주의 대학구조를 개편하여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를 제공하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8년부터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을 운영해왔다.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은 성인의 평생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로 대학의 체제 개편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더욱 확대 개편하여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고등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16).

고등평생교육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고등평생교육의 제도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와 대학으로 간 성인학습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의 두 범

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의 정책, 제도적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모델 수립에 초점을 둔 연구(최운실, 2004; 최상덕 외, 2009),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 설정을 다룬 연구(천세영·한승희, 2006; 박인중 외, 2012), 외국의 선진 고등평생교육 정책과 사례를 검토한 연구(채재은, 2011; 박인섭 외, 2014),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연구(채재은·한승희, 2015),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모형의 구축전략을 제시한 연구(권인탁, 2016) 등이 있다. 또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박상옥 외, 2012; 김정현·이희수, 2015; 박진영b, 2016).

한편,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대학으로 간 성인의 학습경험을 탐구한 연구들로는 성인 학습자의 학업 의미의 이해,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학습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민선향, 2006; Kasworm, Sandmann & Sissel, 2000; Merrill & Alheit, 2004). 이 연구들은 성인학습자가 부여하는 학업의 의미,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만나는 장애물들과 대응,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앞선 연구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정책적 특성과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경험을 드러내는 데 기여해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하나의 정책 맥락이 개인 학습자와 어떻게 만나고 충돌하고 있는지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의 투입 또는 변천을 개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대응해가는지에 관한 분석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나름의 배경을 가진 개체인 동시에 이 정책사업을 직접 경험하는 집합적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이며 하나의 주체인 성인학습자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정책과 만나고 변화하고 갈등하는 과정은 학습자 경험의 맥락적 이해라는 점에서 긴요하다. 나아가, 이는 학습자의 시각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한 B대학의 사례를 통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성인 학습자들이 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졸업 이후는 어떤 후속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고등평생교육 정책이 정착해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¹⁾

1)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의 후속연계사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을 둘러싸고 대학은 많은 내용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이화여대 3일째농성 직장인단과대 설립 반대” 출처:연합뉴스. 2016.7.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88300004.HTML?input=1195m>)

II. 선행연구 고찰

1.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과 현실

한국 사회에서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대 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개방대학교 등 소수의 대안적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창구 역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1995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5·31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시간제등록제’와 ‘만학도제도’를 통해 성인학습자 일반에게 정규대학의 문호가 개방되고 ‘학점은행제’를 필두로 하는 대안적 학위취득제도와 ‘기능대학’, ‘사내대학’과 같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체위탁생제도’, ‘원격대학’ 설립에 이어 2003년 대학과 기업의 계약을 토대로 한 ‘계약학과’ 도입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채재은·한승희, 2015). 하지만 성인학습자 일반을 위한 평생고등교육제도는 이 시기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백은순, 2009).

포괄적 의미에서 성인학습자 일반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제도의 구축은 2008년 교육부에 의해 추진된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방안으로 평생교육과 연계가 모색되고 본격적인 고등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출범하게 된다(채재은·한승희,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은 학습자와 대학,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진입과 대학생활 적응, 졸업 및 취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는 2008년 7개교, 2009년 40개교, 2010년 20개교, 2011년 24개교, 2012년 25개교, 2013년 47개교, 2014년 67개교, 2015년 66개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대학에서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적합한 입학제도, 교육과정, 학사제도와 지원체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에는 단과로 운영되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편방안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김정현·이희수, 2015). 최근 제시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은 학습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학위·비학위 과정의 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이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

한 모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뿌리산업, 대학의 특성화 분야 등과 연계한 전문·희소분야 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 확대 및 직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평생경력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과 사업은 ‘성인학습자 친화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다(박진영b, 2016). 관련 연구들로는 고등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된 평생학습중심대학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최운실, 2004; 최상덕 외, 2009). 외국의 선진 고등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평생교육의 방향과 교육모델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채재은, 2011; 박인섭 외, 2014; 한승희·채재은, 2015). 또한, 최근에는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화함에 따라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성에 기초해 평생학습모형의 구축 전략을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권인탁, 2016).

그런데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시스템의 개혁, 교육조직의 개편과 신설, 성인학습자 입학정원, 지역-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조직의 체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형식교육기관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성인학습자의 ‘경험’의 가치와 의미를 살린 학습자 지향적인 교육과정과 안드라고지 모델에 근거한 교육 운영 사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천세영·이삼경, 2009: 171).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시작되어 4-5년 정도 진행된 시점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상욱 외(2012)에 의하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목표·전략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법·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욱 외, 2012). 김정현과 이희수(2015)는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47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미국 평가인증기구인 ‘COE’의 우수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지표를 활용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교육결과 관리, 인적자원, 학생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김정현·이희수, 2015: 45).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진입뿐 아니라 학습수행 과정과 다음 단계로의 이행 등을 포괄하는 학업주기 전반에 걸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 참여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이 갖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층, 여성, 저학력층을 위한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²⁾. 그런 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이 실제

2) 예컨대 여성들의 학습욕구와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형태는 남성들에 비해 더욱 불일치하여 정규 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을 단위로 하여 정책적 관점 또는 교육제공자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실태를 점검한 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박진영b, 2016; 김정현·이희수, 2015), 이 제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핵심당사자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제도의 의미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교육제도가 학습자 차원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실체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성인의 교육 참여동기와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성인학습자의 대학적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학습과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동기는 그들의 학업생활과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최지수, 2014), 성인학습자들은 ‘학습 자체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상의 활력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두승 외, 1999). 최근 평생학습중심대학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직업능력개발(36.2%), 학문적 지식 습득(25.5%), 창업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습득(14.1%), 사회적 쟁점 관련 정보나 지식 습득(7.1%) 등으로 상당 부분 직업적 동기에 의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그런데 성인의 교육 참여동기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적 요구, 인생주기나 세대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참여 동기가 형성된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가운데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Weathersby, 1981: 59-62; 이지혜, 2006에서 재인용).

한편,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학업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적응과 학업생활을 고찰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제약들, 교육제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와 제도가 불일치하는 상황들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인학습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Kasworm 2005; 이지혜, 2006; 박진영a, 2010). 성인학습자

등교육과정에서 성인여성들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 이공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욕구와 교육제도 간의 불일치 현상이 존재한다(천세영·이삼경, 2009).

들에게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는 심리·육체적 적응과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문적 적응, 사회·물리적 학습 환경의 조성, 동료학습자와의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차원의 도전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박진영a, 2010). 만학 성인학습자들의 형식교육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 이지혜(2006)에 의하면 만학도에게 형식교육은 잃어버린 '특권'으로부터 '낮선 외계', 넘을 수 없는 '장벽', '억지로 입어야 하는 걸옷'과도 같다. 만학 학습자들은 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했으나 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결핍감 등 애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한 길에서 다양한 장벽들을 경험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도전과 역행의 경험, 각종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나름의 선순환적인 생활양식을 구축해가려고 노력한다(이정화·안영식, 2007; 민선향, 2006). 상이한 학습요구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의미를 성찰하여 좀더 통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³⁾.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의 지지와 지원적 환경은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학업 목적의 확대와 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의 증진 등 학습자의 성장과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영섭·신은경, 2011; 박진영a, 2010; 김경은·최라영·박인주, 2015).

또 한편으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가 개인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와 문제와 함께 그들이 이룬 학업의 성과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인정되고 의미를 지니는가하는 문제 역시 고등평생교육의 연구와 실천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업경로를 생애사적으로 분석한 Merrill과 Alheit(2004)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학문분야를 통해 대학에 진입하는데 이들이 취득한 학위는 노동시장에서 기회가 적은 소외된 학위이다(Merrill & Alheit,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경험은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그들의 경험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arvis, 1987).

III.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행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10). 이 연구는 사례 자체에 초점을 둔 본질적

3)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은 학위를 얻기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현재 필요로 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자원'으로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이지혜, 2006).

사례연구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중 하나인 B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성인학습자들이 의도하고 경험한 학업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게 된 개인사적 맥락은 각자의 일상생활과 통합되어 있고 삶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 개인이 형성한 삶의 지향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성인학습자의 학업 경험은 교육제공자의 제도 운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생활 맥락이 교차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 유용하므로(Merriam, 1998), 평생학습중심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맥락과 학습경험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사례 선정 배경

이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도 중소도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B대학에서 성인 대상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사례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B대학은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해왔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12). 그러나 최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⁴⁾에 선정되어 참여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같은 배경 정책의 전환과정은 이 대학에 재학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생활과 경험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B대학의 성인학습자는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대학, 그리고 정책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재학했던 B대학은 중장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설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조직과 관광식음료과, 부동산자산관리과, 어린이영어보육과, 청소년상담 평생학습과 등 4개의 ‘평생학습 정규학과’를 신설하고,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40% 감면 등의 지원제도(‘평생학습 정규학과 입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규정’)를 마련하여 성인학생을 모집하였다. 이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시행 첫 해인 2013년 학과별 학생모집 내역과 등록금 및 입학금, 지원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정부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전문대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5년간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매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15만 명 이상 양성과 전문대학 취업률 80% 달성 등을 목표로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사례로 다룬 B대학은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합산업분야 특성화 부문’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 <http://www.moe.go.kr>. 2014. 6.30. 게시).

<표 1> B대학 성인학습자 현황 및 학비 지원 내역 (기준일자 : 2013. 1. 30.)

해당 학과	학생수		등록금	입학금	지원금	학습자 부담금
부동산자산관리과 (야간)	정원내	1	2,420,000원 (1학기기준)	660,000원	1,628,000원(등록금 의 40%, 입학금 면제)	1,452,000원 (등록금의 60%)
	정원외	14				
어린이영어보육과 (야간)	정원내	2	2,470,000원 (1학기기준)	660,000원	1,648,000원(등록금 의 40%, 입학금 면제)	1,482,000원 (등록금의 60%)
	정원외	13				
관광식음료과(야간)	정원내	1	2,920,000원 (1학기기준)	660,000원	1,828,000원(등록금 의 40%, 입학금 면제)	1,752,000원 (등록금의 60%)
	정원외	14				
청소년상담평생학습과 (야간)	정원내	1	2,470,000원 (1학기기준)	660,000원	1,648,000원(등록금 의 40%, 입학금 면제)	1,482,000원 (등록금의 60%)
	정원외	14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B대학에 2013년 3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재학하여 학업을 마친 학습자들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2013년 기준으로 정부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로 하였다. 둘째, 해당 교육기관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습자 가운데 연령과 성별, 전공별로 다양한 학습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로부터 학습태도가 두드러진 학습자를 추천받아 총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배경 특성

이름	연령	입학시 학력	전공	성별	직업경력/학습이력	재학시 직업	졸업후 진로
이용미	51세	고졸	청소년상담평생학습과	여	보험설계트레이너,개인사업 부동산공부	전업학생	C사이버대 학사과정편입
윤성찬	59세	대졸	청소년상담평생학습과	남	영어교사	무직	C사이버대 학사과정편입
정은순	59세	고졸	부동산자산관리과	여	산야초공부, 미래기업창업과정 특용작물과정	무직	
신영호	54세	고졸	청소년상담평생학습과	남	농업	농업	C사이버대 학사과정편입
조윤영	32세	고졸	어린이영어보육과	여	바리스타자격과정 수료	자영업	
김신옥	55세	고졸	청소년상담평생학습과	여	자영업(주방용품대리점) 학점은행제과정(한국어지도사, 사회복지사), 다수 민간자격증	A도청소년 성문화센터 강사	C사이버대 학사과정편입
김동구	43세	대학 중퇴	부동산자산관리과	남	방송대 경영학과 중퇴 (2년 재학)	실험실기자재 업체 직원	
정금옥	55세	고졸	부동산자산관리과	여	귀농준비교육, 실용조경과정, 특용작물과정, 봉인종개사과정	자영업 (인쇄업)	

* 이름은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음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면담은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학습자 총 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 재학 중인 2013년 10-11월에 개인별로 1-2회, 그리고 학습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인 2015년 10월에 각 1회 등 두 시기에 걸쳐 개인별로 총 1회 내지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은 앞에서 소개한 연구참여자들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한 B대학의 성인 대상 정규학위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한 학습자들이다. 심층면담 준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발간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관련 문헌자료와 연구참여자들이 재학한 교육기관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진이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학업 중인 성인학습자들을 개별적으로 1~2시간 동안 면담하였다. 학습자들이 학업을 종료한 시점부터는 학습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별도 장소에서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면담의 취지와 목적을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설명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 형태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고 한글파일로 녹취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와 1차면담을 통해 도출된 모든 면담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을 거쳐 분석결과를 토대로 2차면담을 준비하였다. 1차면담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전체적인 학습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2차면담에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의 의미를 연구주제에 맞춰 탐색하는 절차를 거쳤다. 2차면담은 1차면담과 약 10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참여자와 1~2시간 정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고 녹취된 자료는 전사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분석에서는 연구자 2명이 면담 내용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였고,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관리자 1인과 동료학습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면담자 2명에게 내용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맥락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최종분석에 반영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들은 영역별로 대주제, 소주제 중심으로 범주화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성인학습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사건들을 파악하여 학습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제도를 성인학습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대응해나가는지 분석하고 발견점들을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IV.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자의 경험 분석

1. 시절인연(時節因緣): 초대와 기대의 일치

학습자가 특정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引力)의 작용이 불가결하다. 연구참여자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입학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학의 적극적인 ‘초대’와 참여자들의 대학에 대한 ‘기대’간의 상호작용이 컸다.

학습자들의 입학에 먼저 권한 것은 B대학이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수주한 B대학은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매우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입학정보를 구하여 얻기보다는 이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간에 대학 관계자들이 찾아와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팜플렛을 보고 직접 찾아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측이 ‘찾아와’ 개최한 입학설명회를 계기로 관련 정보를 얻었다.

[방통]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설명회라 그러나요. 학교마다 와서 하잖아요. 그 때 당시에 C대도 왔었고 여러 군데서 왔었죠. 그 때 여기 처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게 평생교육 쪽으로 지원이 나와서 성인인력 중에 학비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모시고 이러면서 과정을 하는 게 생겼다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들어오게 됐죠. (신영호 2)⁵⁾

제가 커피를 배웠거든요. 그 옆 평생센터⁶⁾에서. 그 당시에 내년에 과가 생긴다고 진단지랑 광고지도 돌리시고 설명회를 했는데...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입학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조윤영 1)

B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이 모여 있는 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주로 대학 인근의 평생교육시설에 집중하였다. B대학이 소재한 중소도시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같은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록생들 그리고 같은 도내 귀농학교라든지,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등이 그것이다. 설명회는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한 곳에서 한 두 명 이상씩은 등록했으며 특히 방송통신고 졸업생들의 반응이 가장 높아 40여 명 중 4

5) 면담자이름 옆에 숫자‘1’과 ‘2’는 각기 1차면담과 2차면담을 의미함

6) B대학 평생교육원을 뜻함

명이 동시에 등록하였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설명회에서 들었던 B대학의 홍보내용이 아주 매력적이었다고 말한다.

사실은 제가 그거[입학하려] 했던 학과는 아니었는데 신설학과면서 하도 선전을 많이 해줘가지고선 이 과로 오게 됐거든요. [중략] 신설과라서 이제 뭐 특혜도 그렇고 좋다고 하도 선전을 해서. (정은순1)

대학은 홍보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특혜를 약속하는데, 이는 후일 학습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홍보자료에 다음과 같은 특전을 밝히고 있다.⁷⁾ 이에 따르면 등록금 대폭감면은 물론이고, 40세 이상 중년 입학생을 대상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사전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을 특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B대학의 입학홍보자료

<p><B대학 4050세대 평생학습 정규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p> <p>1) 입학자 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40%감면- 1974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는 2013학년도 학기당 100만원 범위내 장학금 지급- 과거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학습부담 대폭 경감 <p style="text-align: right;">(이하 생략)</p>
--

대학 측의 설명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첫 번째 매력으로 꼽았던 것은 학습성과에 관한 것이다. B대학이 ‘정규학위과정’이라는 점과 학사과정 이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가장 주요한 입학동기로 꼽았다. 참여자들은 모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경험을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체로 유사한 방계학제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평생학습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학습의 의지도 강한 편이었다. 참여자들이 입학 당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은 확실하게 자신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정규학력’과 ‘자격증’과 같은 ‘공식성’이다.

내 자본금 안들이고 내 육체노동을 할 나이는 아니고 써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7) 출처: lifelong.hsc.ac.kr. 2012.10. 게시, 2013년 10월 검색

러면 그 재능을 갖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닦지 않았다는 것은 어...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략] **우리나라는 문서의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재능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전문기관. 기관에 다시 배움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배움을 선택하고 난 뒤에, 제 진로를 다시 제 정비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이용미1)⁸⁾

이용미는 생애 후반기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와 이를 위해 ‘문서의 제국’에서 필요로 하는 ‘공식성’의 중요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필요한 콘텐츠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인가였고, 이는 B대학 홍보자료에도 ‘정규학과’라는 표현으로 강조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실제 저희 나라 사회풍토가 그 학력 위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작용을 했구요. 두 번째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머어는 한 분야에서 정상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 나이 대에 있어서 투자에 관련해 보면 부동산도 배워야 할 하나의 인생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도 선택하게 된 거구요.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첫 번째 머 학위 취득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생공부에 있어서 부동산도 하나의 배울 만한 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구1)

정규 학위과정을 마치고 그 결과가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취업전망을 아주 높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소득 확보보다는 ‘사회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B대학의 과정이 새로운 사회환원 활동의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입학한다.

공부하신 학자분들이 한 가지로 우리가 정년을 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럴라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른 계통으로.. 백세시대인데 내가 공부로 준비를 해서 그게 모든 무기를 재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 뛰어들면 환원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공부한다는 생각은 오로지 수입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수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나이에 만족은 알파...** (이용미1)

B대학과정의 두 번째 흡인요인은 학습여건이 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8) 이하 강조는 연구자 표기

는 점이다. 대학의 권유는 학습자 개개인이 정규 학위 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여건에 부합하면서, 실제 입학 지원과 참여로 이어진다. 참여 여건은 무엇보다도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크다. ‘시간’ 여건에 있어서는 B대학이 중소도시 최초로 야간에 개설된 정규학사과정이라는 점도 주효했다. 일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은 인근에 야간과정이 없어 부득이 온라인과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학습자들에게 ‘오프라인 야간’ 과정이라는 점은 학습자 개인의 여건에 잘 맞는 조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개인 생애주기에도 부합한다. 주 참여대상으로 삼았던 4050세대, 특히 40대 후반 이후는 가사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여력은 다소 있는 상태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일단은 보편은 시니어들 사·오십대 연령대 사람들이 의식주가 최소한 안정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집안에 여자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남편들한테 권하든지 공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요시간 공부한다고 집에 이 시간정도는 여유는 되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도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영호1)

평생학습중심대학은 개인들의 요구와 상황에 알맞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였다. 참여자들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단 기회를 잡기로 한다. 이들의 입학 결정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적정한 학습자 확보가 필요했던 대학으로서도 반가운 선택이었다.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맞이할 준비가 된 대학이 서로 적절한 ‘시절인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 같은 시절인연이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세대의 엄마,아빠들은요. 일단 자식이 우선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용감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감한 용기를 낸 거지. 힘든 부분이거든요. [중략] 그런데 요번에 평생교육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학비 안 내는 분도 많아요. 예 그거는 진짜. 시대를 잘 만났다 하기도 그렇고 **나라를 잘 만난거죠.** 국가를 잘 만난거죠.(이용미1)

참여자들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입학은 국가와 대학, 그리고 개인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 합치와 정렬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2. 동상이몽(同床異夢): 적자(嫡子)와 서자의 등치(等値)

B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후, 연구참여자들은 기대했던 학습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애로에 부딪치기도 한다. 입학 초기 학습자들과 대학은 서로의 필요를 잘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만이 커져가는 양상을 보인다.

참여자들은 입학 이후 ‘대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로 뽑는 것은 체계적 지식 습득과 함께하는 동료들, 그리고 학습영역의 확장이다. 첫째로 강의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무엇보다도 기존의 지식을 체계화 추상화할 수 있는 이론적 접목을 가장 만족스러워 한다. 자신이 축적한 경험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지식을 배우면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아가 이를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 부동산이라 하면 집을 짓고 사고팔고 이런 개념만 알았지. 실제 그 부동산의 향후 흐름이라든가 세계 그, 부동산의 흐름 또 아니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움직여하는지에 대한 그런 패턴들을 논문들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닌깐 그게 저희한테는 모르는 분야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고 하시니깐 저희가 모르는 외국의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시고 하닌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것 같습니다. (김동구1)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안드라고지의 특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답게 바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현실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신랑이 어머니를 너무나 좋아라하는데 그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클 때에 프로이드 저거 그분이 말씀한대로 크는 과정에서 어..만족을 다 못했을 때에 부모의 사랑에 만족을 다 못 했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깐 신랑을 이해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안된 거예요. 당신이 어, 엄마 사랑을 형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평생을 짝사랑하게 됐구나. 내가 죽으면서도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용미1)

둘째는 협력적 학습관계의 확보이다. 비슷한 상황의 학습자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새

로운 협력학습의 경험을 하는 것도 성과이다. 이들은 서로 비경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일상을 염려하고, 배움을 독려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지적 욕구가 아주 강하신 분들 같아요. [중략] 나이가 있으시지만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또 그분들도 저한테 모른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 될 있는 거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김동구1)

셋째로 학습영역의 확장 추구이다. 정규 전공과정 이외에 다양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의 학습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간다. 이를 통해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들도 자격증이 바로 취업과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막연한 기회에 대비하고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는다.

논술하고 국사 논술, 민간자격증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이제 다음주 23일날 국사 논술은 시험을 보고요. 그냥 그 논술은 아예 먼저 1학기 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정은순 1)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 자산관리사 하고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세 개의 자격증을 지금 저희가 일 년 전에 그러니까 일학년 때 도전을 했거든요. 이학년 때는 세 가지 자격증 중에서 하나를 따자 해서 저희 동료들끼리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중략]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따서 장롱면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십 살 욕심 살 되었을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쪽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혹시 모를 제 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 같아요. (김동구1)

그러나 참여자들의 학습과정 동안 긍정적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여자들은 대학의 학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이견과 불만을 표출한다. 학습자들은 안정되고 자신들에게 집중된 교육을 원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자주 지적한 것은 지원제도와 운영의 미흡함이다.

B대학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표현대로 ‘급하게’ 열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 모집할 때 공표한 자격증을 줄 수 없게 된 사태이다. ‘청소년상담평생학습

과'로 모집하면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전문학사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없게 되자 '청소년지도사'로 말을 바꾼 것이다.

2급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준다고 팜플렛에 찍혀 있어갖고.. 2급 자격증을 준다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얼마나 치열했게요. 5대1로 들어갔는데... 청소년상담 자격증도 안주고, 청소년지도사를 준다고 말을 바꾼거야. 1학기 지나가니까. 이 학과이름이 청소년상담, 그러니까 2급자격증을 졸업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자빠지는 거죠. 지도사자격증 3급을 주겠다고. 상담사자격증이 따로 있고, 지도사자격증이 따로 있고. 우리도 몰랐죠. (이용미1)

이 같은 중요한 변경이 과정을 진행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은 준비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드러내준다. 지원체제 역시 정비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낳았고 학습자들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도 항상 교실 옮겨다니고, 히터도 잘 안되고 프로젝터로 썬서 수업 진행하는데 교장도 자주 나기도 해서. (조운영1)

그 교수진들이 전혀 엉뚱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약간 수준 미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관심 갖는 정도의 우리의 부동산 안다 그러면 좀 관심 갖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 분들이 섭외되신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공부하는 데에 실망들을 많이 했어요. (정금옥1)

이렇게 부실한 지원체제의 배경으로 참여자들은 젊은이 대상의 정규과정에 비해서 평생 학습과정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소외감을 '주워온 새끼'라고 표현한다.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임지도교수의 확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자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으로 제기한 것이다.

[부실한 지원체제] 해결이 제도로 안 되죠. 학교하고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중략] 처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하고 싫은 소리나 언쟁이 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교수님이나 학과장님이나 있다고 하면..강의실 같은 거도 다 좀 신경 써서 배정을 받고 했겠지.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000교수라든지 있지만, 그 쪽에 학과가 그 쪽(학생)이 본새끼고, 우리는 그냥 주워온 새끼지 의붓자식. (신영호1)

대학행정의 일반구조를 생각하면, 학과별로 정해진 교실과 책상이 있고 상세한 지도상담을 전담하는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전용강의실, 전임지도교수와 같은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의붓자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조직에 정식 멤버십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보통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게끔 해줄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남의 집을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다니거든요. 요방에 갔다가 조방에 갔다가 (이용미1)

‘정규 멤버십’에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자-학습자간의 관계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된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학하여 ‘정규 학과’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와 다르게 ‘평생학습의 한 분’으로 취급하는데 대해 약간의 모욕감조차 느낀다.

우리는 수시로 성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는 학생이에요. 근대 들어오는 교수님은 어째 모르고 그냥 ‘평생학습의 한 분’으로 말씀하실 때는 많이 화가 나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교수님들이] 본과는 어쨌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과는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우리는 왜 본과가 아니고 그거 과냐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 졸업장 받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말씀 한마디가 그리고 연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우리는] **진짜 학생**이에요. (이용미1)

그러나 대학과의 관계설정에서는 철저히 학생으로서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학습자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성인’으로서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전통 대학생들이 받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여건 구비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성인학습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교육시스템을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주장한다. 즉, 수업난이도 문제를 지적하거나, 혹은 자신들을 상대평가제도의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것이 그 예이다.

교양 이런 데는 영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다 손을 놓고 있다 시작하니까 굉장히 조금 힘든 거는 있구요. 아무래도 교양에서는 조금 인제 어려움이 많이 느껴져요. (정금옥1)

40·50이라는 어떤 색다른 개념을 두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견지에 입장

을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너무 거기에 정확한 [상대평가]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요렇게 두부 찌르듯이 그렇게 찢라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약간의 그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학습에 대한 기쁨은 조금씩 줘야 그 사람도 그걸 유지를 해나갈 어떤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질 텐데 딱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A니까 잘한거고 이거는 C니까 못 한거고, 그건 너무 그 의욕 자체를 많이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져요. (이용미1)

학습자들이 ‘성인·학생’ 이라는 양면적 정체성 가운데 적절한 것을 필요에 따라 내보이는 것은 대학이 편의와 필요에 따라 학습자들의 입장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성인대학생이 갖는 학생-성인으로서 이중성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안에서 무리하게 등치(等值)된다.

3. 대실소망(大失所望): 종결과 연속의 배치(背馳)

야심차게 시작했던 B대학의 학사과정은 2년차에 이르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B대학이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하면서 학교 측은 기존에 수행하던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결국 해당 학사학위과정은 현 재학생의 졸업과 함께 종료하고 더 이상의 신입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장학금 등 지원을 점차 줄이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급속히 취약해진다. 학위과정 소속 학생이자, 정책사업의 당사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은 배신감에 가까운 당혹감을 갖게 된다.

되게 실망 했어요. 실망 엄청했어요. 학교라는 데에서 이렇게 말을 뭐라나 앞뒤를 이렇게 바꾸나 하는 생각을 실망을 하면서도요. 저런 큰 대학에서 어떻게 말을 저래 바꿀까 너무 실망을 하다가, [중략] 교육이라는 건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2년을 하고 마는 거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기대했던 우리가 틀렸지. 이런 실망감들 있잖아요. 신뢰도라든지 예.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잘 해먹고 지내는 또 정책 만들겠지. **그거 이문 빼고 또 싹 바꿀텐데 뭐.** (김신욱2)

모집하고 시작할 적에는 아마 꽤...취업정도까지 일자리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끝나가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거지....사람들이 기껏 [졸업장] 받고 끝나고 하니까.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신영호2)

사실 대학 측은 처음 제시한 ‘학위수여’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었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기 제안 받은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특전 역시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분노한 까닭은 (전문학사)과정이 지속된다면, ‘후속’, 즉 전문학사과정 ‘그 이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대했던 ‘후속’이란, 전문학사 이후의 ‘진학’ 또는 취업을 포함하는 ‘사회환원’ 활동에 대한 대학 측의 지원이다. 그래서 예고 없이 폐과한 대학으로 인한 자신들의 상황을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들여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게..앗사리 무식하면 용감하거나 하지만 어정쩡한 사람은 **위로도 못하고 아래도 못가요**. 우리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입을 못해요. 안 배웠을 때보다 못해요. [중략]우리가 지금 기로에 선기, 이게 **중간서 딱 멈춰져 버리면** 공부해갖고 다시 집에 들어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금낭비하는 결과밖에...갈팡질팡 우왕좌왕 (이용미2)

참여자들은 전문학사 이후 편입을 통한 일반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진학’ 그리고 학습성과의 즉각적 활용,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환원’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안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죽어라고 2년 공부해봐야 성적표 받아갖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적표 낼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배워서 백세 시대인데, 우리가 다문화 과정을 도울 수도 있고, 노인들의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저도 강의공부해서 강의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혜택을 줬으니까 그걸로 그만입니다** 라고 갖고 가야할 건지 아니면 이걸 이어서 사회에 환원해줄 수 있게 해줄 건지...우리나라 여러 행정절차나 정책 상황들을 보면, 하고는 딱 그만이거든요. 그 이후에 여튼 뭐 **알아서 하든 말든...** (윤성찬2)

A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를 뽑았대요. 이런 때 “**한번 이력서를 내보세요**” 라고 정보라도 줬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신옥2)

학습자들의 분노는 해당과정 졸업 이후 오히려 학업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과정을 마치는 동안 배움 자체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학사’가 갖는 애매함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그냥 요거 졸업하는 걸로다가 했는데 또 다니면서 욕심이 생기잖아. 기왕

시작한 거니깐 배움터를 이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평생교육을 하면서. (신영호2)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일관되게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특이한 공통점이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듯이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다.

무엇을 딱 하겠다 그건 아니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 다른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평생 가지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지요 (조운영)

공부는 좀 끝없이 해볼 생각이예요. 공부는 인제 뭐 나이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흥미를 가져야될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길도 보이구요. (정금옥)

학습자들은 후속과정에 대한 학교 측의 안내와 연결을 기대했으나, 이미 학교의 초점이 다른 국책사업으로 이전한 이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학의 무관심에 대응하여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자신들의 학습경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 그리고 2년 과정 동안 축적된 ‘동료애’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에 나선다.

이들이 생각하는 후속학습 참여기관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종래 배운 것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사기가 아니어야’ 하며, 등록금이 저렴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참여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동일 지역 내의 대학 편입이었지만, 모두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원하는 전공도 없어서 진학이 어려웠다. 반면에 방송대학은 편입도 용이하고 유사전공도 갖고 있지만, 기존 수강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했다. 뿐만 아니라, ‘견학’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저하고 발 벗고 뛰어 다녔죠. C대 그 쪽에 학과장님도 이렇게 찾아와서 다 알아보고. 내가 그랬어요. 사이버대라는데 내가 봐야할 거 아니냐. 아무데나 인터넷 하나 가져다 놓고 사기 치면 나는 어찌냐.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돈도 돈이지만 사기 일까봐 걱정이 엄청 됐어요. 인터넷 사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견학을 다 했어요. C 사이버대에 부총장님 만나서 견학을 다 하고 확신이 있어서 그 때 입학울 추진을 한 거예요. (윤성찬2)

이처럼 엄격한 비교 검토를 거쳐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참여자 중 네 명이 선택한 후속진로는 C사이버대학 편입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앞선 B대학 입학 때보다는 보다 진전된 협상력과 주도성을 보인다. 심지어 입학금 감면을 위하여 학습자가 나서서 두 대학간 'MOU'를 체결하도록 하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준다.

C사이버대에서 30만원 입학금 있죠? 이거를 입학금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입학금을 무료로 해달라 하니깐 C대에서는 돈이 많잖아요 입학금이. 조건을 뭘 달았냐면은 B대하고 MOU체결이 안 되어 있네요. [중략] 그래서 제가 C대학 있는 D시에 갔어요. 가서 교수님을 만나고 MOU 체결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체결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문서의 나라인데 증거자료가 없으면 안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B대 학과장하고 C대 학과장하고 전화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해서 우리 30만원 다 돌려받았어요. (이용미2)

학습자들은 B대학에서의 경험을 반성하고 대학과의 협상과정에서 주도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현재까지의 전개과정을 보면 B대학 입학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 C대의 학과장과 관계자들은 홍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입학 전부터 장거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학습자들이 사는 지역에 직접 찾아와 파격적 감면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격적 마케팅과 가격 협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측의 역할은 정확히, 대학은 '상품판매자' 그리고 학습자들은 '상품구매자'처럼 보인다. 이후 학습자들은 대학의 홍보활동을 돕는 역할까지 맡는다.

여기 한 세 번 올라오셨지? 그래서 그 분이 홍보하러. 우리 후배들 교실에 갔어요. B대에 홍보하러. 그 교수님이 화면 띄워놓고 홍보를 하시고, 저는 현실감 있는 경험을 얘기했죠. 제가 홍보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중단을 하시면 C사이버 쪽에서 아쉬운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복을 차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검색해서 얼마나 비교 대조를 해서 선택을 한 부분이고 너무나 지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미2)

이렇게 되풀이되는 판매와 구매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입학 초기에 생각했던 평생학습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게 된다. 종결의 과정에서 대학은 참여자들을 종결이 예정된 자(自) 기관 등록 학생으로 단절된 한 국면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반면에, 개별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학습을 전생애적 연속선상에 놓고 바라본다.

저한테 공부는 희망이죠. 미래고. 지금 여자 나이 오십이 되면요. 여자로서 많은 것

을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침통해지고 우울해지죠.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중략] 교육이라는 것을 만나고 난 뒤부터 희망과 미래가 생긴 거죠. 젊었을 때 미래는요, 길고 탄탄대로예요. 지금의 미래는 그렇게 밝고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을 만나는 바람에 이 길이 더 넓어지고 이 길에 희망이 더 큰 거예요. 젊었을 때 희망보다. [중략] 그냥 그 때는 남들이 가니깐 가는 길이었지만 **이 길은 제가 만들어서 개척을 하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이 애뜻하겠어요.** 그 길은 길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지겠지요. ... 교육은 나의 미래고 희망이다. **교육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희망과 미래에 내 생애 찬란함은 없죠.** (이용미1)

학습자들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찬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자들의 찬탄에 값할만한 응답을 교육기관이나 제도가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V. 논의

‘평생학습중심대학’이란 일종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이다. 일상적으로 ‘평생학습’이 광의의 통합적 개념보다는 주로 ‘비형식교육’을 제한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그 뒤에 바로 이어오는 낱말인 ‘대학’, 즉 ‘형식교육’의 정수(精髓)로 간주되는 교육적 실체와는 충돌한다.⁹⁾ 평생학습중심대학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안고 있는 태생적 이중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인 대학과 학습자들 역시 이중적 목소리를 내도록 만든다. 정책사업에 내재한 양면 가운데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보고 싶은 측면만 바라본다. 때로는 양 쪽 입장이 조화롭게 합치되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 서로에 대한 엇갈린 기대와 오해, 혹은 편의적 이해를 수시로 감행한다.

대학 측과 성인학습자들은 마치 각기 1인 2역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불행히도 이 역할극의 합은 잘 맞지 않는다. 한 쪽이 엄정한 형식성을 기대할 때, 상대는 개방적 여지를 원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경우도 잦다. 형식성과 비형식성을 기준으로 대학과 학습자가 각기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른 양측의 접촉면은 아래 <표 4>로 요약된다.

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는 ‘국가인정체제’로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는 것을 형식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비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12-13).

<표 4>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한 대학과 학습자의 이해

대학 \ 학습자	(대)학생	평생학습자
정규학위과정	정원확보 = 학위필요 [공식성]	엄격한 학사관리 ≠ 성인배려요구 (상대평가 등) [체계성]
평생학습과정	예고 없이 자격 변경 및 과정 종결 ≠ 졸업 후속 안내 [비체계성]	탄력적 운영 = 시간·비용 제한 (야간운영, 저비용) [유연성]

※ 각 칸에서 등호/부등호의 왼편은 대학의 조치나 필요를, 오른편은 학습자의 요구나 기대이며, [] 안에는 해당 집면에서의 키워드를 표기하였음

첫 번째 범주는 대학과 학습자들 모두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형식교육’의 범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합의국면이다. 이 면의 핵심은 ‘공식성’으로 대학은 예정된 정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공격적 홍보를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 취한 입학절차 등은 종래 학사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한편은 학습자들 역시 학습과정의 공식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이 ‘형식교육’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로 설득하고, 학습자들 역시 이를 선호한다.

두 번째 범주는 대학 측은 ‘형식교육’의 입장을 취하지만, 학습자들이 오히려 ‘평생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갈등 국면이다. 대학은 적령기 대학생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학사관리시스템을 동일하게 학습자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반면에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4050 성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화된’ 배려 혹은 ‘특별한’ 대우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체계성’이다. 대학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학습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범주는 대학과 학습자 모두 이 과정이 ‘평생학습’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에 합의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에 동의할 때 나타나는 범주다.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인 성인학습자들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야간에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저렴한 학비를 제안하는 것에 끌린다. 학사운영의 측면에서는 양측이 비교적 쉽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네 번째 범주는 대학은 정규과정과 다른 ‘평생학습’과정이라고 인식하는데 비하여, 학습자들은 정규대학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충돌 상황이다. 대학은 정규 학과 개설 때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절차를 도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전공의 목표 자격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 조치를 충분한 안내 없이 공표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재학생-졸업예정생-졸업생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계속 대학의 관리와 안내를 요구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분석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제한점을 드러낸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은 그 자체로 통합된 상(像)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도와 인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과 학생 사이, 정책과 개인 사이 분절과 오해가 생겨나고, 각 주체들은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분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다. 학습자들은 한정된 정보와 지식에 기반하여 동료와 협력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모색하고, 주도적으로 대안 경로를 탐색하고 협상한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이번 사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자들의 참여동기가 직업적 동기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이번 사례는 직업적 동기 못지않게 학력 취득에 대한 동기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이는 참여자들의 이전 학력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참여자들의 모집이 방송고 졸업생 등과 같이 이미 학력 트랙을 추구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해당 지역 최초의 야간 학사과정이라는 지역 배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학습자들의 복합적 참여동기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력’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언급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김영화 외, 1993; 이지혜, 2006). 둘째로, 성인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서구의 연구들이 일반대학생과 관계를 중심으로 적응과정을 주로 연구한데 비하여(Kasworm, 2005; Faust & Courtenay, 2002; Asbee & Woodall, 2000)¹⁰⁾, 이번 분석은 성인학습자들만 별도로 참여하는 학사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관 및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학습경로를 개척해가는 양상은 다른 사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다. 셋째, 이 같은 학습자들의 주체적 대응에 비하여 현재의 대학과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것 역시 주요한 시사점이다. 전문대가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된 바 있으나(김정현·이희수, 2015; 권인탁, 2016), 실제로 학습자가 체감하는 교육현실은 학과명에 맞지 않는 자격을 발급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매우 비체계적이다. 이 같은 비체계성의 근간에는 국책사업 수주에 절박하게 기대는 개별 대학의 상황과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이 자리

10) 일반대학생의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수용적이고 지원적 태도는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Kasworm, 2005; Faust & Courtenay, 2002; Asbee & Woodall, 2000), 일반대학생이 성인학습자들을 적대적, 이질적, 비수용적인 태도로 대하면 성인학습자들은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asworm et al., 2000).

한다. 넷째로, 학습자들의 후속경로를 볼 때, 학습자들은 또 다시 실질적 ‘학력’과 ‘자격’을 매개로 대학편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B대 입학 시 대학 측의 홍보를 신뢰하고 막연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열려진 학위과정이 실제로 노동시장 진입에는 불리하다는 분석(Merrill & Alheit, 2004)과 일치한다. 요컨대, 여전히 성인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불리하고 친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투 중이다.

VI. 결론 및 제언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등 고등평생교육체제가 보다 성인친화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개선을 필요로 한다.

첫째,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중요 당사자로서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정책적 건인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중년층 집단 가운데 학습의욕이 높고, 체계적인 학습활동에 익숙한 집단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 이외에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다양한 사업의 중심 대상이자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들이 전문학사학위를 마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자발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들이 원활하게 학습 참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운영방식은 모집 시 공지했던 기본적인 약속조차 불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별 대학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동일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때 정책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통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의 시행에서 전문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적극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 이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도모하는 학습자들의 양상은 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이 직업교육에 강점이 있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은 직업교육을 근간으로 이루어지지만 학습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학사학위와 공식 인증된 자격이다. 개인학습자와 대학의 입장 차이는 후속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전문대에서 성인 대상 학위과정을 도입할 경우, 어떤 지향점과 목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고등평생학습’ 체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산과 프로토콜의 정립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한 분절적 접근은 이해의 엇갈림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종래의 ‘대학’과 ‘평생학습’이라는 트랙 구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도 트렌드도 바뀌었지만 관련 주체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새로운 현상을 보려는 관성이 있다. 이는 확고하게 뿌리 내린 우리나라의 단선형 학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방송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고등평생교육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 ‘대학’과 ‘대학 이외’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강력히 남아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영향 아래 대학도 학습자도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책이 확산 일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학습자층이 자기계발을 해나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뿐 아니라 교육 기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학습자의 장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과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세대의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교육환경에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일 역시 고등평생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박진영b, 2016).

본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실재를 들여다봄으로써 그간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고찰되지 않은 연구주체들을 찾아내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본질에 근접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은 ‘먼저 온 미래’이다. 눈앞에 임박한 고등교육의 대규모 지형 변화를 앞두고 미래의 대학과 평생교육을 둘러싼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 최라영, 박인주(2015). 대학학위과정 성인학습자의 행복에 관한 연구: 플로리시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3(3). 한국열린교육학회. 87-109.
- 김영화, 이인호, 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두승, 이경아, 윤미선, 김한별(1999).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서울: 교육부
- 권인탁(2016). 직업실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의 평생학습모형 구축전략: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4(1). 한국열린교육학회. 79-100.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6). 2016년 후진학 평생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정현, 이희수(2015).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학의 조직진단과 시사점. **한국HRD연구** 10(2).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9-49.
- 민선향(2006). 성인들의 배움에 관한 연구: 학위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상욱, 노경란, 이은경, 장환영, 현영섭, 엄보현(2012).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CR 2012-3).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진영a(2010).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4). 한국평생교육학회. 1-29.
- 박진영b(2016). 문화적응 관점에서 성인대학생의 대학적응 선행연구 및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분석. **교육문화연구** 22(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37.
- 박인섭 외(2014). **대학의 평생교육 해외선진사례 심층 조사분석 연구**(RM2014-9).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인중, 장동현, 양병찬, 권재현, 김만희, 신경석(2012). **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CR 2012-4).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백은순(2009). 대학 평생학습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평생학습정책 포럼 자료집. 67-95.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이정희, 안영식(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한국 평생교육학회. 89-116.
- 이지혜(2006). 만학 성인의 생애경험에서 형식교육의 의미. **교육학연구** 44(4). 한국교육학회. 115-142.
- 이희수, 권인탁, 송병국, 양병찬, 이성엽, 백미현(2014).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중 장기 발전방안 연구(TR 2014-5).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채재은(2011). 미국의 성인대학생 적응지원 사례 분석. **비교교육연구** 18(3). 한국비교교육학회. 155-177.
- 채재은, 한승희(2015).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1-24.
- 천세영, 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 전환. **평생교육학연구** 12(1). 한국평생교육학회. 127-144.
- 천세영, 이삼경(2009).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욕구와 고등교육기회 접근형태간의 불일치 현상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한국평생교육학회. 169-185.
- 최상덕, 성낙돈, 조대연, 박진영, 김태준(2009). 대학평생학습의 모형 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2004).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 발전모델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0(4). 한국평생교육학회. 47-86.
- 최지수(2014).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학습지속의 관계에서 교육서비스질의 조절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20(4). 한국평생교육학회. 145-174.
- 현영섭, 신은경(2011).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저해 요소와 학습저해 해소 방법에 대한 개념 연결망 분석. **한국HRD연구** 6(3).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3-48.
- Creswell, J.(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 출판)
- Faust, D. F., & Courtenay, B. C. (2002). Interaction in the intergenerational freshman class: What matters. *Educational Gerontology* 28, 401-422.
- Kasworm, C. E. (2005). Adult student identity in an intergenerational community college classroom. *Adult Education Quarterly* 56(1), 3-20.
- Kasworm, C. E., Sandmann, L., & Sissel, P. (2000). Adul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In A. L. Wilson & E. R. Hayes(Ed.)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pp.449-463). San Francisco: Jossey-Bass.
- Knapper, G. K., & Cropley, A. (2000).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3rd ed.). London: Kogan Page.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errill, B., & Alheit, P. (2004). Biography and narratives: adult returners to learning. In M. Osborne, J. Gallacher and B. Crossan (Eds.) *Researching widening access to lifelong learning*. (pp.150-162). New York & London: Routledge.
- Schuetze, H. G., & Slowey, M. (2002). Participation and exclus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traditional students and lifelong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44(3). 309-327.
- Yin, K. R. (2005).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신경식 외 역). 서울: 한경사. (원전은 1976년 출판)
- 연합뉴스(2016. 7. 30). 이화여대 3일째 농성 직장인 단과대 설립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88300004.HTML?input=1195m> 2016. 7. 30. 인출.

· 논문 접수 2016. 7. 30 / 수정본 접수 9. 23 / 게재 승인 9. 27

- 이지혜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이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문해교육, 성인학습, 교육복지 등임.
- 권진희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한림대학교 미래교육평가원 조교수로 재직 중임. 관심분야는 고등평생교육, 학습자 지원체제 등임

Abstract

A Case Study on Adult Students
in Lifelong Learning College, on the Border
betwee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Lee, Jihye (Hallym University)

Kwon, Jinhee (Hallym University)

This case study was to explore the challenges in building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ertiary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learners.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adult learners enrolled in a college which had implemented the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proj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adult students and the college had different expectations and understandings of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The dissonance between both parties was shown in each educational phase as follows. At first,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admission, the college and the students readily gave consent to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program, focusing on as a formal education. Secondly, with regard to the aspect of academic management, adult learners expecting to stretch the rule have conflicts with the college that emphasized equal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all students without exceptions. Thirdly, regarding academic administration such as tuition exemption and evening classes, the college and the students had the mutual consent to the flexibility as a lifelong learning program. Lastly, in response to the sudden closure of the degree courses that was caused by policy changes of the college, students who were expecting follow-up process had come up with their own alternative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lifelong lear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placed on the border of formal education and non-formal education were left with a number of challenges.

* Key words: adult student, lifelong learning college, higher education, adult learner